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1월 30일 (제77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향기와 악취

목회 초기 때의 일이다. 성도가 굴 한 상자를 선물해 줘서 차 트렁크에 실었는데, 깜빡 잊고 그대로 여러 날이 지났다. 어느 날 운전 중 하는데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차 안을 둘러봐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아차 하여 주차해놓고 트렁크를 열어보니, 이게 웬일이냐. 한 상자나 되는 굴이 거의 다 썩어 뭉그러져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일도 썩으면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꽃도 그렇다. 싱싱한 꽃은 그야말로 매혹적인 향기를 발하지만, 싱싱함을 잃은 시든 꽃은 향기가 아닌 모호한 냄새가 난다. 신앙도 그렇다. 싱싱한 신앙,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사랑의 향기, 인내의 향기, 충성과 화평의 향기, 온유와 절제의 향기... 그래서 향기를 좇아 나비와 벌이 모이듯 많은 자들이 모이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한다.

그러나 신앙이 시들면 향기 대신 고약한 냄새, 악취가 풍긴다. 세상적인 냄새, 호색의 냄새, 우상숭배의 냄새... 이런 냄새에 퐁파리들이 꼬이듯, 악한 자와 타락한 자가 꼬이고, 거기에 귀신들이 설치게 되어 인생 전체가 썩게 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에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에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후2:15~16).

‘싱싱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일 터, 신앙이 있다하나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면 죽은 것이다. 내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미동 없는 신앙인가 살피자. 만일 움직임이 없다면 시든 신앙, 죽은 신앙으로 악취나 풍기고 있음을 알고 신앙에 각성해야 할 것이다.

중미 엘살바도르(EI Salvador) 선교여행

중남아메리카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EI Salvador).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좀 크고 인구는 약 600만이며 중미 국가 중 유일하게 태평양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엘살바도르는 작은 쿠데타와 오랜 내전으로 몸살을 앓다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치안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집회 중에도 정부가 파견한 무장경찰대가 늘 목사님을 보호하며 다녔다. 공항부터 가는 곳마다 무장 군인들이 보이고, 호텔을 비롯한 공공장소는 무장한 경비들이 지키며 출입하는 차량들을 폭탄탐지장비로 검색하곤 했다.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해 보였다.

회의 칸파나(Quintana) 장로가 동행하고 있었다. 이현숙 선교사를 통해 그가 오게 된 사정과 그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는 모두 감동에 젖었다. 요즘 다이돌핀(Didolphin)이란 감동호르몬이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모두 칸파나 장로로 말미암아 다이돌핀에 흠뻑 젖을 수 있었다.(관련기사 4면)
기운은 썩썩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였다. 이튿날 우리는 집회를 위해 수도 산살바도르(San Salvador)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을 넘게 차로 달려 산타루시아(Santa Lucia) 주(州) 아르세(Arce)시에 도착했다. 현지 목회자들이 오찬을 베풀다 해서 갔더니 길가에 있는 작은 음

될 숙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졌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았다. 목사님은 숙소에서 도착하여 일행이 군소리하면 혼내줄 심산이었다고 하셨다. 선교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감사로 받고 오직 영혼구원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들로서도 차마 그럴 수는 없었는지 우리를 약 30분 정도 떨어진 산타아나(Santa Ana)라는 큰 도시의 숙소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작게 안도하며 감사가 절로 나왔다.

그런데 집회 첫날부터 뭔가 느낌이 여느 집회와 달랐다. 통상 목사님이 단에 오르시고 찬송과 기도가 이어지면, 처처에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는 역사



엘살바도르 산타루시아 주 아르세 집회 광경

목사님은 공항에 영접하러 나온 목회자 협의회장을 비롯한 현지 목회자들, 그리고 시장을 대리하여 나온 종교담당관에게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먼저 법을 강화하여 치안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치안이 허술한데 누가 들어와 투자할 생각을 하겠는가? 또한 위정자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외국인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쪽에 눈을 뜨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통당할 뿐이다.”며 법질서 강화와 자유로운 경제 환경조성, 그리고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강조하셨다. 이번 집회에는 파라과이(Paraguay) 교

식점이었다. 차들이 오가는 소음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동양에서 온 손님이라고 스시김밥을 내왔는데 파리가 달려들어 연신 쫓기에 바빴다. 그래도 아프리카 가나(Ghana)에서 보았던 파리 떼보다는 적으니 다행인 셈이었다. 그리고 점심 하나에 고기와 야채를 담아 내왔다. 고기는 질기고, 야채는 물기도 없이 다 말라 있었다. 그들 말로는 이곳의 부자들이 먹는 음식으로 준비했단다. 대로변에 앉아 이런 음식을 대하니 몇 년 전 멕시코(Mexico) 인디언 마을에서 먹었던 헛간 같은 숙소가 떠올려지며 곧 이어 목회

가 나타나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럴 경우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님이다. 겉으로 내색은 못하시고 회중 속으로 내려가 직접 안수하시며 이 열음을 깨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셨지만, 그 타는 속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후에 고백하셨다. 그런데 모든 집회일정을 마치고 아르세시의 시장부터 현지 목회자들에게서 그 분명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시계바늘처럼, 온도계처럼 정확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목회자협의회가 오찬을 베풀어주었다



정부가 파견한 무장경찰대와 함께



단상 아래로 내려가 직접 안수하시는 목사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3:21~23)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다윗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 13:21~23).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신 것일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윗의 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다윗도 흠이 많은 사람인데...’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처를 취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우리아를 죽인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민 이스라엘의 합법적 조상이자 처음으로 메시아 언약을 받았던 자니까 거론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많은 조상들을 제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것은 정말이지 깊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신약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많이 언급됩니다. 이는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다윗도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 다윗처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애쓴 자가

(삼하9:7). 즉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소유지를 다 회복하게 하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다음은 바실래라는 노인에게 은혜를 갚은 일입니다. 다윗이 암살품의 반역으로 마하나임에서 피난을 하고 있을 때 다윗 군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로글림의 부(富)한 노인인 바실래입니다. 다윗은 그의 공제에 감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실래에게 동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는 그동안의 은혜를 갚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실래는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거절하고 대신 바

실래의 아들이 다윗과 동행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바실래의 아들인

아들에게 그동안 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임종할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바실래의 후예를 잘 대우하라고 유언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암살품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왕상2:7).

또한 다윗은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장사지내준 길르앗아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며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울을 죽인 자에게 훈장을 줄 텐데 그 자는 죽이고, 죽은 그를 거둔 자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삼하2:6).

다윗은 사람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백분의 일이라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제가 성에 들어올 때 나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자 그는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삼하6:21~22).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왕으로서의 체통 따위는 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육신의 정욕

으로 인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높여 아리따운 동녀가 시중을 들어도 동침하지 않았습니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왕상1:4).

여러분,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자의 얼굴은 다릅니다. 눈빛도 다릅니다. 행복해보이고, 설렘이 느껴 집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바실래에게 은혜를 갚을 때 제일 기뻐했던 것은 므비보셋이나 바실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당사자였습니다. 다윗이 제일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쩌다 부모님께 선물이라도 해드리면 선물을 준비할 때부터 기쁘지 않습니까? 어서 드리고 싶고, 드리면 어떤 표정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흥부의 은혜에 감사해서 박 씨를 물고 흥부의 집까지 날아온 제비의 가슴도 두근두근 거렸을 겁니다. 어서 흥부에게 박 씨를 주고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70가까운 나이에

한 바퀴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부족한 저에게 이처럼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어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냥 기쁜 겉

상처는 모래에 쓰되 은혜는 대리석에 써라

니다. 3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도, 꺾박을 당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갚는 일이기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주님의 행복한 노예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시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고로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나 진배없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고, 받은바 은혜에 보답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수직적인 감사는 물론이고 수평적인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절대 불평하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으며,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가 되고,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물론이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목사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상사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친구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시116:12). 할렐루야!

흐르는 물 한 컵을 따쥐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다윗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먼저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맏아들인 요나단은 의형제로서 친형제 이상이었습니다(삼상18:1~4). 그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전사했을 때 다윗은 만가(挽歌)를 불러 요나단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삼하1:17~27). 이런 다윗이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생존해 있음을 알고는 데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총회장 이초석 목사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바보처럼 살지 마라!

조적팀 데모도(기공 보조). 지난 1997년 기도원 공사 이후로 건축현장에 봉사하러 가면 어김없이 주어지는 역할이다. 조적이란 벽돌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니 모든 일은 기공(기술자)들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지만 사실 데모도도 나름 챙겨야 할 일, 신경 쓸 일도 많다. 기공이 출근하기 전에 그 날 작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작업이 다 끝나도 다음 날 작업을 위해 단도리(사전 작업)를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때문에 조적 데모도가 챙겨야 할 도구들도 상당하다. 그중에 별 볼일 없어 보이면서도 정작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멘트 봉투다. 사모래를 옮겨 담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 고무통, 바케쓰, 마대자루 등등 이것저것 다 써봤지만 단연 이게 최고다. 가벼운 데다 옮기기에 딱 알맞은 양이 들어가고, 게다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여럿 있는 반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종이 재질이 다 보니 물기에 약한 것이다. 모래가 젖어 있는 경우나 거친 작업 현장 때문에 금방 너털거리기 일쑤다. 쉽게 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공이 더 붙어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 이 또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이곳저곳 다른 현장을 기웃거리며 봉투를 주워 모았다. 작업 틈틈이 젖은 봉투는 네모난 강통에 물을 피워 말려가며 조심조심 사용했다. 한 장 두 장, 그렇게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어느새 봉투가 한 가득이다. 사람 마음이

참 우스운 게 이것만 보아도 내심 뿌듯해진다. 일명 깔깔이(자동 렌치)와 삽, 그리고 기타 장비들도 넉넉하게 꼬불쳐(?) 두고 가면 고단한 환경에도 마음만은 넉넉하기만 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그 끝이 있는 법. 건물이 완성되면 현장을 정리하고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몇 달간 고락을 함께 한(?) 장비들도 내려놓아야 한다. 사역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알뜰살뜰 모아놓은 시멘트 봉투와도 이젠 안녕이다. 가져가야 한날 쓰레기로 전락할 뿐이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 그래..., 그렇다. 인생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네가 참 어리석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을 때문에 아득바득 안달을 한다. 정작 하늘 아버지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소용도 없는데, 돈이 뭔지 직위가 뭔지 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목을 맨다. 사도 바울은 ‘당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전15:58)고 권면한다. 만약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 헛될 뿐이라 평가받는다면 어떨까! 인생 참 서글퍼질 것이다. 김도향씨의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곡에 이런 소절이 있다.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뒤늦은 후회다. 그리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다. 당신은 바보처럼 살지 마라! 장래에 당신 스스로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지혜로운 정치기가 되라(딤후6:19)!

신현명 목사

미루는 습관을 버리자

나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때 스마트폰 알람을 이용해서 일어나는데, 알람을 끄고 다시 자는 습관이다. 스스로도 한 번에 못 일어나는 습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람을 3~4개씩 맞춰놓고 잠이 든다. 어떨 때는 분명히 내가 알람을 끄고 다시 잠을 청하는 것임에도 내가 언제 알람을 끄고 다시 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꼭 한 번에 일어난다고 다짐을 하고 잤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기도를 했다. 처음 몇 번은 잘 일어나지 못했고 아침기도를 하다가 졸기 일쑤였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수차례 시도하다보니 원하는 대로 한 번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 아침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흐리멍덩한 정신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그 상태가 하루 내내 지속되어 일이 잘되고 먹는 것을 절제하게 되는 등 생활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쁜 습관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습관이 미루는 습관 중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순간의 편안함을 누리려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지, 고통스럽지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태한 현재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롬8:13),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잠13:4) 되어 있다.

게으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 미루는 습관은 버리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Messages for today::

이웃을 돌아보자

추계산상집회 때 내 눈이 머문 곳은 사택 앞에 있는 감나무 한 그루였다. 감나무 높이는 가지 끝에 감 하나가 대롱대롱 달려있었다. 그것은 너무 높아 따지 못한 것이 아니다. 분명 새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 옛 어른들은 그것을 ‘까치 밥’이라고 했다. 겨우내 먹을 것이 변변찮은 새들이 먹으라고 배려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감나무가 어느 단풍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성경에 보면 떨어진 이삭에 대한 율법이 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

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19:9~10, 23:22, 신24:19~22).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인도적인 규정에 의하여 밀밭, 포도원, 감람원 등에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타국인을 위한 소득이 되게 했다. 객과 과부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효부인 룯이 보아스의 논에서 이삭줍기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14:29).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자고로 허기지면 더 춥다. 마음까지 시리다. 그러니 늘상은 아니더라도 이때만이라도 가난한 이웃, 형제를 한 번쯤 돌아보자. 시린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 따스해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랴.

구제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사랑은 움직일 때 그 가치가 발하는 법, 우리 이웃을 돌아보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19:17).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

신영서
jesus7857@g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구걸하는 가난한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옷도 갖춰 입지 못해 오돌도돌 떨고 있었고, 얼핏 봐도 며칠은 굶은 듯 수척한 몸이었습니니다. 가족이나 날씨가 추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각기 호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걸음을 재촉할 뿐, 그 모녀에게 토포도려주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때 몇 주 전부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그 길을 지나가다 모녀를 보았고 마음이 격동한 겁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니다. “자칭 ‘사랑’이시라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 불쌍한 모녀를 저렇게 내버려둘 수 있나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면 이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한참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선 아무런 응답도, 변화도 없었지요. 그렇게 외치다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가려던 청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그 거리로 보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약2:17). 다가오는 겨울,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청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겠습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다이돌핀의 주인공 키타나(Quintana) 장로



파라과이 교회의 키타나 장로

요즘 종편케이블 TV에 방송되어 각광을 받고 있는 다이돌핀(Didorphin)이란 호르몬이 있다. 암 치료와 통증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엔돌핀(Endorphin)보다 무려 4천배의 효과가 있다는 다이돌핀은 일명 감동호르몬으로 불린다.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됐을 때,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등, 무엇인가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신비의 호르몬 '다이돌핀'이 분비된다고 한다. 바로 이번 엘살바도르(El Salvador) 집회에 동행한 파라과이(Paraguay) 교회의 키타나(Quintana) 장로가 준 감동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키타나 장로는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에서 이현숙 선교사를 보좌하고 있다. 그는 70세가 다되어 이미 정규 교수직은 은퇴했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대학에 출강하며 건축, 설계, 측량을 강의한다. 또한 시에서도 이 관계 일을 보

곤 한다. 그는 신앙문제로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살면서 여생을 오로지 교회 일에 헌신하고 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장로직분의 임명장에 대해 감격을 표하곤 한다. 그는 늘 그 감사를 잊지 않기에 이번에도 목사님 생신에 함께 하기 위해 엘살바도르까지 동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현숙 선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욱 그를 다시 보게 했다. 그는 시의 측량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남의 묻혀있던 땅을 찾아주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액 20만 달러(한화 약 2억 원)를 교회건축을 위해 드리겠다고 했단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목사님은 키타나 장로를 치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키타나 장로는 정말 하나님이 먼저인 사 람이다. 그야말로 성경 전도서가 말하는 일천 남자 중의 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키타나 장로는 몸 둘 바를 모르며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 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키타나 장로는 이런 말을 할 때면 반드시 땀방울 같은 눈물을 흘린다.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는 온 몸을 떨며

어쩔 줄을 모른다. 감정 표현이 워낙 극적인지라 별 것 아닌 일에도 온 몸을 떨 듯이 웃곤 한다. 그의 건강 비결은 웃음 이라고 할 만큼, 마치 사춘기 소녀들처럼 잘 웃는다. 금요일이나 주일에배 때면 예배 전 찬양시간에 단에 올라 청년들과 함께 율동을 하며 찬양한다. 70이란 나이를 무색케 할 만큼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장로님이다.

목사님은 생신파티 자리에서 키타나 장로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교회건축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이현숙 선교사의 요청에 라구나 선교사와 키타나 장로, 이렇게 세 명을 앉혀놓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목사님 기도의 요점은 교회를 멋들어지게 지으려다가 양떼를 섬기며 돌보는 종이 아니라 건물이나 섬기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각별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도 거듭 강조하셨다.

“많은 종들이 교회 짓고 나서 문제에 봉착하는 이유는 교회를 짓고 꾸미는데 에너지를 다 쏟다가 정말 교회 본연의 사명은 뒤로한 채 건물관리자로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가? 절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교회를 지으려는 생

각일랑 말아라.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건축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명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건축을 키타나 장로에게 맡겼으면 끝까지 믿어줘야 한다. 시시콜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다이돌핀을 즐긴 이야기 하나 더 하겠다. 우루과이(Uruguay) 예수중심교회에 플로렌시아(Florencia)라는 15세 소녀가 있다. 그녀의 15세 성인식에 할아버지가 미국 디즈니랜드로 보내 주겠다고 했단다. 그러자 플로렌시아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저는 디즈니랜드 안 가도 좋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교회의 마이크 시스템을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잊었다고 한다. 정말 예수중심교회 젊은 이다운 생각과 행동 아닌가?

키타나 장로와 플로렌시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깊었다.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거리만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은커녕 바로 내 옆의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나는 과연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일까?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Good News

일본 전역에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는 '가스미'라는 슈퍼마켓을 창업한 가미바야시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평양전쟁 당시에 일본군 장교로 참전하여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 파푸아뉴기니 부근에서 큰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그들에게 가

장 큰 고통은 갈증이었습니 다. 수많은 군인들이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시는 바람에 망망대해에서 하나, 둘 죽어갔습니 다.

그러나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했던 가미바야시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바닷물을 마시지 않았습니 다. 바닷물에는 염분이 있어서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

까지 견디다가 구조를 받아 살아났다고 합니다.

삶에 갈증을 느낀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죄악의 물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요7:37~38).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4).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생수입니다. 그러므로 바닷물 같은 세상의 물을 마시지 말고 영생하는 샘물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Edu Section::

얼마 전 <나의 독재자>라는 영화를 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의 인생살이가 담긴 따뜻한 영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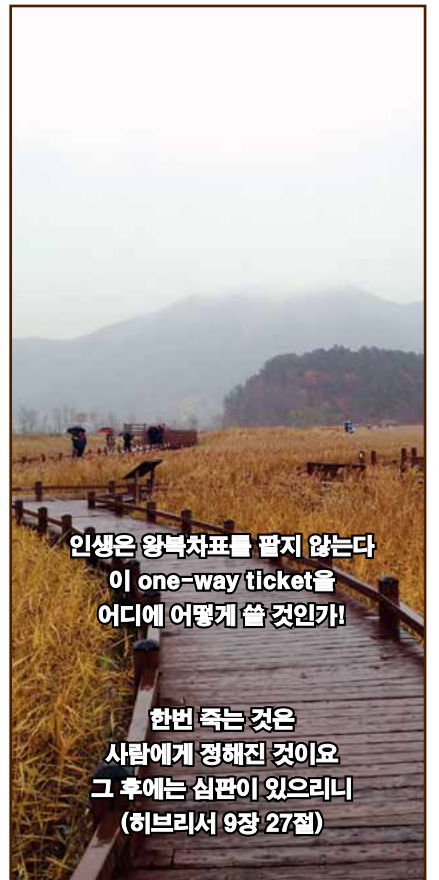
연극배우가 꿈인 무능한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연극배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아들이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연극 무대에 오르게 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생각과 달리 그날 공연은 엉망으로 끝이 난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처와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아버지는 자신의 한생을 전부 바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들에게 마지막 연극을 보여준다. 그것을 통

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하고 아들에게 가족이라는 참된 의미의 소중한 선물을 줄 수 있게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위상이 떨어진 요즈음의 아버지들과 그런 아버지들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아버지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보아 줄 여력이 없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적과 진학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자녀의 관심사와 친구 관계, 고민거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자녀들은 이야기해봐야 부모님들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친구와 스마트폰에만 정신을 쏟는다.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너무 요원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대화

가 단절되고 사랑이 수수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슴 저린 부모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영화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 끝에 결실을 이루어낸다. 영화를 통해 깨달은 점은 가족 간에 마음을 여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부모라는 이유로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자식은 부모를 모른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가족 간에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노력을 하라.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인생은 왕복차표를 팔지 않는다
이 one-way ticket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